

보도 일시	2022. 11. 9.(수) 09:00	배포 일시	2022. 11. 9.(수)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책임자	팀장 조한석 (044-203-2372)
		담당자	사무관 박선애 (044-203-2374)

문화데이터로 세상을 밝히다

- 11. 10. '2022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11월 10일(목),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서울 중구)에서 '2022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을 열어 제10회 경진대회 수상팀과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특별강연과 가상현실(VR) 그리기(드로잉) 공연 등을 진행한다.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공연과 전시, 도서, 체육, 관광, 한류 등 다양한 문화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경진대회이다. 지난 10년 동안 총 2,478건이 공모에 응했고 그중 약 63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올해 경진대회(6. 22.~ 7. 31.)에서는 제품·서비스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 데이터분석 부문 등에서 134건의 공모작을 접수한 가운데 부문별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4개의 수상팀을 선발했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 공모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은 '딥비전스'팀이 받는다. '딥비전스'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 기술과 문화데이터를 결합해 실외 체육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최우수상은 해외 플랫폼에 우리나라 도서 정보를 소개하고 전 세계 수출 서비스를 제안한 '이지포트'팀이, 우수상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 '네이앤컴퍼니'팀이 수상한다.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제안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문맹 농민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베토벤’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전통 성악 교육과 국악 공연정보 제공을 제안한 ‘리치유’팀이, 우수상은 배우 지망생과 배역 감독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위아미아(wiiamiia)’팀이 받는다.

올해 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분석’ 부문에서는 10~20대 여가활동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서비스를 제안한 ‘쉬면 뭐하니’팀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류(케이) 콘텐츠 촬영지를 활용한 외국인 친화도 분석과 경로(코스)를 제안한 ‘와다다다’팀이, 우수상은 지역 구별 체육활동 참여율 차이 원인을 분석한 ‘핏체인저’팀과 어르신(시니어) 특화 정보기술(IT) 지원 시설 입지 선정을 제안한 ‘시소’팀이 수상한다.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6곳 선정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중 문화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서비스 품질 개선에 힘쓴 우수기관도 시상한다. 올해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으로는 ▲ 한국정책방송원(대상), ▲ 국립중앙도서관(최우수상), ▲ 국립국어원(우수상), ▲ 한국관광공사(우수상), ▲ 국립국악원(장려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장려상) 등 총 6개 기관을 선정했다. 경진대회 수상 팀과 우수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 총 5,550만 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활용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문화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시대에 발맞춘 문화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의 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 홍보물



